

사무관직 다수 폐지
본청-읍면 인사순환
헤드헌팅·드래프트

지자체 조직 혁신 눈에 띄네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과격적인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으로 조직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4곳의 5급 사무관 자리를 없애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광홍보과와 지역개발사업단이 관광개발과로 통합되고 보건지원센터 보건사업과와 주민자치과가 폐지됐다. 군은 또 조직을 1실 9과에서 1실 8과로 줄이면서 공무원 정원도 572명에서 33명이 감소한 539명으로 축소했다. 함평군도 지난달 28일 단행한 6급이하 담당 및 직원 인사에서 헤드

헌팅과 드래프트 방식을 처음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부서장이 직원들의 경력과 능력, 적성, 본인의 희망부서 등을 고려해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복수로 추천한 다음 해당 부서장과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담당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군은 6급 담당급 전보인사에서 이같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영광군은 이달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4·5급 복수직에 5급 직원을 우선 임명기로 했다. 군은 4급과 5급 직원이 모두 임명

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5급 직원을 우선 임명해 복수직위의 취지를 살리고 인사 운영에 신속성을 주기 못했다. 또 우선 임명 대상인 5급 직원의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일 때 당사자가 공모연수 희망을 제출하거나 명예퇴직 의사 밝힘 경우 4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이들 '핵심 직위'의 실·과장들도 다른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전보하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인사 순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장성군도 조려안 개정을 통해 다음달 총액 인건비의 5%에 해당하는 24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재난안 전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공무원 조직 슬림화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선출직인 단체장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결정"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합평=박영진기자 py4079@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신창·수완지구 주민자치센터 건립

광산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보건지소도 ... 2009년 상반기 완공 계획

광산구 수완, 신창지구에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가 들어선다. 광산구는 신창, 하남 수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중이다. 광산구는 수완지구에 건축비 45억

원을 투입, 연면적 1천980㎡ 규모의 주민센터를 겸한 보건지소를 올 하반기 착공해 2009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신창지구에도 건축비 23억원을 들여 1천270㎡ 규모의 주민자치방 등 편의시설을 갖춘 주민센터를 내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또 하남 택지개발지구에도 주민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2개 지구에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가 완공되면 그동안 신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각종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rtee@

장성군 정파 초월 군정보고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초청...지역현안 사업 지원 당부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정당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군정보고회를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청 장성군수는 지난 달 3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이낙연의원(합평·영광·장성)을 초청해 군정보고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장성군은 이날 군정 현황보고 및 현안사업인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백암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의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군수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개편으로 이 의원이 새로 장성을

맡게 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발전 위한 상호협력 강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인 자치단체장이 정파를 초월해 정당소속의 지역구 의원을 상대로 군정보고회를 갖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장성지역에서는 민선이

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 의원은 "의원생활 9년동안 군수로 부터 군정보고회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대접이 아닌, 일을 많이 시키려는 뜻으로 알겠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또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를 통해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한 국회의원인 유치 등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장성군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회에는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과 장성군의원, 이 의원 보좌관, 장성군청 실과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8월 첫 날 무궁화와 독립문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서재필 기념공원 일대에 무궁화가 활짝 폈다. 4만5천700㎡ 규모의 기념공원에는 서재필기념관과 독립문, 사당, 조각공원, 동상,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다. <보성군 제공>

고려청자 보물선 900년만의 귀향

강진청자박물관 9일부터 태안유물 특별전

고려청자 보물선이 900년만에 고향인 강진으로 귀향한다. 강진청자박물관은 "오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태안 대산(竹島) 수중 발굴 성과를 알리는 '고려청자 보물선-강진, 태안, 그리고-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진청자박물관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고려청자 보물선의 발굴품이 900년 만에 강진으로 귀향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시테마는 ▲고려시대 태안선의 항로 ▲태안청자 탐진에서 빛어지다 ▲새로운 역사기록 '목간' ▲강진청

자의 생산과 유통 ▲태안청자의 예술 세계 ▲개달음의 그릇 '청자발우(靑磁鉢盂)' ▲산예출항 사자장식 항로 ▲두꺼비모양 벼루 ▲침몰상태 재현 ▲태안선의 닻줄과 닻줄 물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출토품 2만3천여 점 중 고려시대 청자와 목간(木簡·화물표), 닻줄, 닻줄 물레(호룡), 솔 등 500여 점(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태안선 목간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 중 고려시대 최초의 목간이자 900년 전의 청자제작과 유통에 대한 내용을 명문으로 확인시켜주는 귀



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목간에는 지명을 뜻하는 탐진(耽津·강진의 옛 지명)·京(개령), 수취자를 뜻하는 최대경(崔大卿)·안영호(安永戶)·유장명(柳將命)과 담당자의 서명으로 추정되는 수결(手決) 등이 기록돼 있다. 윤순화 강진청자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900년 전 청자 제작과 운송의 생생한 역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조상들의 빛나는 과학기술 아시나요"

전남도농업박물관 '전통과학 체험학습전' 개최

전남도농업박물관이 2일부터 10일까지 '전통과학 체험학습전'을 개최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미래산업기술연구원과 전남도농업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체험학습전은 방학중인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을 비롯해 휴가를 맞이한 어른을 대상으로 마련된 문화행사다. 국립중앙과학관 소장품인 전통 농기구, 천문기구(돌거북해시계, 측우기, 규표, 앙부일구 등), 화로(돌화로, 놋쇠화로, 무쇠화로 등),

자물쇠(전통 자물쇠류 수십 종), 무기류(철궁 및 화살) 등이 전시되며, 시청각실에서는 천문도와 철의 제조, 염색의 과학, 옷감 제작, 전통 식품 과학, 한지 제작, 전통무기 제작 과정 등이 담긴 영상교육 물이 무료로 상영된다. 또 전통 놀이 및 전통생활체험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통과학기기 모형 만들기, 공예 체험 등 재료비만 내면 되는 유료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 있다. 입장료는 어른 700원, 아동 300

원이다. 이 밖에 매일 40명의 체험단(1인당 1만원)을 모집, 요일별로 주제를 정해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일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화요일엔 천문 관측 기구(앙부일구) 모형 만들기, 수요일 전통공예 및 인쇄(한지공예, 짚공예, 목판인쇄), 목요일 천연염색, 금요일 전통무기(현자총통 또는 거북선) 모형제작 등이 진행된다. 참가자 지원에겐 수료증이 수여된다. 다만 4일은 휴관일이다. 문의 (061-471-0330) /영암=박진표기자 lucky@

"화마에 빼앗긴 꿈 돌려주세요"

나주시 노안면 주택화재 불우이웃 돕기 나서

할머니와 아들 내외, 손자, 손녀 등 3대 6명의 대가족이 생활해 온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가족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밤 11시경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김모(73) 할머니집에서 불이나 주택 전체가 불타다. 이때문에 김 할머니는 마당 한켠 헛간에서, 40대 아들내외는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으며, 손자

와 손녀들은 친구집 등을 전전하고 있다. 아들 내외는 경제 능력이 없어 김 할머니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

돼 있으며 손자, 손녀들이 아르바이트로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비를 충당해 왔다. 노안면사무소는 어려운 생활 형편

에 화마로 집까지 잃은 이들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생계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짓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컨테이너 보금자리라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문의 (061-330-8609, 016-682-8081)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새 열 글/

"고객만족 군정혁신' 앞장"

윤재영 보성군 부군수



"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보성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윤재영(57) 보성군 부군수는 "특히 보성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만족 군정혁신', '도약하는 산업경제', '지역사랑 인재육성' 등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출신인 윤 부군수는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행정학 석사)했으며 전남도의 회사무처 임명정책 전문위원, 세무회계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윤심(54)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주민 소득 연계 기업유치 최선"

최장주 영광군 부군수



"지역경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장주(58) 신일 영광 부군수는 "R&D 사업 등 고용창출과 주민 소득이 연계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 출신인 최 부군수는 호남대 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을 수료했으며 지난 76년 완도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전남도 기업통상과 경제정책담당,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미옥(50)씨와 사이에 3남이 있다. 취미는 테니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영광·함평 노인요양보험 조사

이석형 함평군수 등 인정조사 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지사장 김대섭)가 지난달 29일 함평운영센터 직원들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정조사에는 이석형 함평군수도 참여해 노인들의 신체기능능력을 비롯한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의 상태를 확인하고 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석형 군수는 "더욱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요양보호사의 배출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